

# 광주FC 박한빈 “공격포인트 10개 이상 올릴 것”

지난해 K리그2 3골 6도움 기록 센터백·미드필더 등 멀티 활약 베스트 11 수상 등 커리어하이 민첩성·반응속도 중점 훈련 매진 올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



“공격포인트 10개 이상 올려 K리그1에서도 커리어하이를 만들겠습니다.” 광주FC ‘멀티 플레이어’ 박한빈(26)의 올시즌 포부다. 광주FC의 3차 동계전지훈련지인 제주 서귀포에서 훈련 중인 박한빈은 “1부리그에서도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K리그2 팀들 보다 더 강한 팀을 상대하는 만큼 나도 더 강해질 것이다”며 “많은 경기를 소화해 K리그1에서도 커리어하이를 찍고 시상식에 참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한빈은 지난 시즌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2016년 대구FC에서 프로 데뷔해

줄곧 ‘대구맨’으로 뛰다가 지난 시즌 광주FC로 이적한 그는 K리그2 38경기에 출전해 3골 6도움으로 프로 데뷔 이후 ‘커리어하이’를 기록했다. 박한빈은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 가릴 것 없이 어느 자리든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광주의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에 기여, K리그2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특히 이정호 감독에게 인정받은 게 가장 큰 소득이었다. 이 감독은 “박한빈처럼 중앙센터백과 앞 미들, 전방까지 소화하는 멀티 선수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지난 시즌 박한빈의 활약을 높게 평가했다. 박한빈은 “원래 미드필더였는데 지난해 광주로 와서 수비수와 공격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잘 소화한 덕분에 커리어 최고를 찍었고 좋은 상도 받아 만족스런 시즌이었다”며 “축구를 새롭게 배우게 해준 이정호 감독님과 코치진의 도움이 컸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아내의 내조가 좋은 결과를 만들게 한 동력이었

다”고 지난 시즌을 되돌아봤다. 지난해 최고의 한해를 보낸 박한빈은 올해 K리그1에서도 ‘커리어하이’ 시즌을 다짐했다. 그는 “지난 시즌은 나에게 90점을 주고 싶다. 당초 10개 공격포인트가 목표였는데 1개를 채우지 못해서 10점을 뺐다”면서 “지난 시즌 많은 경기를 뛰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올해도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만들어 5골 5도움 이상의 공격포인트를 달성해 K리그1에서도 커리어하이를 만들겠다”고 새 시즌 각오를 다졌다. 박한빈은 올해 베스트 11 수상과 국가대표 꿈도 꾸고 있다. 그는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시상식에 참여하는데 너무 좋았다. 올해도 K리그1 시상식에서 베스트11상을 받고 싶다. 또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에도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한빈은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시즌 기간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민첩성과 반응속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굵은 팜방울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말 하와이에서 보낸 신혼여행 기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1시간씩 한 결과 3kg를 뺀 85kg으로 최상의 몸상태를 만들었다. 동계훈련기간에는 민첩성과 반응속도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다. 또 이정호 감독의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기 위해 수비 포지셔닝에 대한 분석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박한빈은 “감독님이 요구하는 포지셔닝을 아직 100%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수비 시 위치 선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박원규 분석코치와 함께 훈련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되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서 공을 받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리그1 올라간 만큼 더 발전된 모습을 팬들을 비롯해 구성원들에게 보여 주겠다. 올해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번 시즌 많이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약속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박한빈이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체육공원 축구장에서 2023시즌 K리그1을 대비해 3차 동계훈련을 벌이고 있다. 광주FC 제공

## 광주FC ‘컨트롤 타워’ 수비수 김경재 영입

노련한 수비리딩·경기운영 장점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컨트롤 타워’ 수비수 김경재(29·사진)를 영입,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FC는 15일 전남드래곤즈와 제주 유나이티드 등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김경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경재는 183cm·73kg의 체격을 바탕으로 탄탄한 대인 방어와 태클, 빌드업이 뛰어난 중앙 수비수로 평가 받는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까지 소화 가능하며 노련한 수비 리딩과 함께 안정된 경기운영으로 ‘컨트롤 타워’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경재는 이정호 감독과 인연이 깊다. 그는 광주에 오기 전 이 감독과 두 차례 한 술밥을 먹은 바 있다. 2012년 모교인 아주대에서 이 감독과 사제의 연을 맺은 김경재는 2015 아시아대학 친선 축구대회



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다. 2016년 전남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 데뷔한 김경재는 세 시즌을 소화한 후 군복무를 위해 상무에 입대,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후 이 감독이 코치로 몸 담았던 제주에 이적해 세 시즌 간 45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1부리그 승격과 2연속 파이널A 진출에 기여했다. 이 감독과 세 번째로 합을 맞추게 된 김경재는 “대학 시절과 제주 시절 모두 이정호 감독님이 있었기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 시즌 놀라운 성적으로 당당히 1부리그에 복귀한 팀에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며 “팀에 하나되는 게 최우선이다. 늦게 합류한 만큼 빨리 몸을 만들어 팀의 또 다른 역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 WBC 이강철호, 美 애리조나 투손 캠프 집결

국내 팀들과 5차례 연습경기 14년 만의 4강 진출 목표 아래 태극전사들이 모였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이 1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각자 소속팀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며 몸을 만들던 선수들은 대표팀 훈련을 위해 애리조나에 도착했다. 이날 애리조나 캠프에 소집된 선수는 최종 엔트리 30명 중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제외한 28명이다. 메이저리거인 김하성과 에드먼은 시범경기를 치르다 3월 초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회가 한 달 여도 남지 않은 만큼 대표팀은 실전 경기 위주로 훈련을 진행한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이 진

행되는 가운데 17일 곧바로 NC 다이노스와 첫 연습경기를 갖는다. 이어 20일 KIA 타이거즈, 23·25일 KT 위즈, 27일 LG 트윈스와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다. 선수들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하면서 동료들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 이강철 감독과 코칭스태프도 바쁘다.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대회 구상을 해야 한다. 대표팀은 오는 28일까지 애리조나 훈련을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3월1일 오전 한국에 도착하고도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이 이어진다.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마지막 검검을 가진 뒤 WBC 공식 소집일인 4일에는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6일과 7일에는 각각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 7일 한신 타이거스와 마지막 모의고사가 계획돼 있다. 8일 결전지인 일본 도쿄돔으로 이동한 대표팀은 9일 호주와 첫 경기로 WBC 서막을 올린다. 뉴시스



‘슈팅’ 손흥민 침묵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왼쪽)이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 AC밀란(이탈리아)과의 경기 중 공을 다루고 있다. 손흥민은 81분을 소화하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 토트넘은 0-1로 패했다. AP/뉴시스

## “꿈과 도전 있는 광주장애인체육 만들 것”

김현성 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취임식 갖고 업무 돌입 “일상 속 내일이 빛나는 광주 장애인체육, 꿈과 도전이 있는 광주 장애인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성(사진)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의 취임 소감이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제 28차 이사회 및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5대 사무처장에 임명된 뒤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김 사무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0여년간 장애인체육인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광



주사회의 당당한 체육단체로 성장하게 됐다”며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우수 선수,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발전과 5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광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동환 기자

그는 주요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치구 전환배치 완료 △5개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추진 △5개구 반다비 체육관 건립 △장애인종합훈련센터 건립 △5개구 장애인체육회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 △장애인 선수 일자리 연계를 꾀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는 작년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원정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에서의 최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광주 7만 장애인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